

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본격화

사업비 1458억원 최종 확정 국가연구개발평가위원회 의결 민간 발사장·발사체 센터 등 건립

고흥군의 발전적 미래를 이끌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고흥군은 최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 '2024년 제6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발사장 1199억원, 발사체 기술 사업화센터 259억원 등 총사업비 1458억원이 투입되는 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탄력 받게 됐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신속한 기반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 8월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된 바 있다.

이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이뤄졌다.

적정성 검토 결과 올해부터 2030년까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 조성을 위해 특구별 우주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 및 자생적인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집중될 예정이다.



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모식도.

〈고흥군 제공〉

'민간 발사장 구축 사업'은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민간 우주발사체 발사를 위한 전용 발사장과 발사체·탑재체 조립·시험에 필요한 조립 시험시설이 구축된다.

발사체 특구의 거점센터인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는 발사체 핵심 구성품의 성능평가·검증을 수행하며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로서 민간 발사체 산업 육성을 위한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

고흥군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우주항공청·전남도와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민간 전용 엔진 연소시험 시설 등 필수 기반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 건의도

준비하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난달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예타면제사업으로 최종 확정되고, 이번 민간 발사장과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구축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만큼 우주산업 클러스터 핵심 사업들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주항공청을 비롯해 발사체 기업 및 연구기관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고흥군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가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광양시, 최고경영인·최고근로인상 후보 접수

다음달 16일까지...산업평화상도

광양시가 오는 8월 16일까지 '최고 경영인상' '최고 근로인상' '산업평화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광양시는 기업인과 근로자의 의욕을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해마다 기업인과 근로자를 선정해 부문별 1명씩 표창하고 있다.

'최고 경영인상'은 본사, 지사, 주사무소, 공장 등의 사업장을 광양시에 둔 기업체에서 3년 이상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하면서 기업 성장과 지역 산업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경영인을 추천하면 된다.

'최고 근로인상'은 사업장을 광양시에 둔 기업체에서 같은 업종 분야에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기술개발, 품질향상, 지

역사회발전 등에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산업평화상'은 광양에 사업장을 둔 기업체의 사업주 및 근로자로서 노사 간 화합과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후보자는 서류심사, 현장 확인, 기업사랑 공적 심사위원회 심의까지 3단계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수상자는 11월 '제3회 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각 수상 기업에는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용자금 이자 추가 우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 우선 지원 및 추천, 광양시 주요 행사 초청, 기업(기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추천기준, 구비서류 등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광양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투자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 향동 문화의 거리서 '향도령' 만나보세요

사랑 고백하는 조형물 설치 눈길

순천시 향동 문화의 거리에 사랑을 고백하는 유성 '향도령' 조형물이 설치돼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조형물은 '연인들이 은행나무길을 거닐다 떨어지는 은행잎을 잡으면 사랑이 이뤄진다'는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꽃다발 대신 은행잎을 건네며 사랑을 고백하는 유성의 모습으로 완성됐다.

이번 사업은 올해 향동의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추진됐으며, 특히 '어떤 포토존을 만들지'부터 '어

디에 설치할지', '캐릭터 이름은 뭐로 할지' 등 다양한 고민을 주민들과 함께 풀어나 의미와 재미를 더했다. 한 주민은 "환하게 웃는 유성 캐릭터가 동네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고, 한옥골방 이미지와도 잘 어울려 사랑받는 포토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시 향동행정복지센터는 앞서 '안녕, 향동' 마을 웹툰 연재, '밤에 쏙 만나는 시크릿 벽화' '보랏빛 골목갤러리' 등 애니메이션 관련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확대 운영

여수시가 교통 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를 기존 30대에서 60대로 확대 운영한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에는 일반 택시로 영업하지만, 장애인·임산부·65세 이상 노인 등 교통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 배정되는 콜택시이다.

장애인 콜택시 요금(2km 기본 500원, 추가 1km마다 100원)만 내고 내리면 시가 요금 차액과 장려금(회당 1,500~2,000원)을 해당 기사한테 보전해준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한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타야만 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이용 기회를 보장해 준다.

하지만 이용 대기시간이 평균 45분 소요되는 등 배차 한계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바우처 택시를 30대에서 60대로 증편키로 했다. 이용 시간도 1시간 연장돼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향사랑지정기부 효과 “곡성에도 소아과 의사가 왔어요”

다음달 27일부터 매주 2차례 육과보건지소에서 진료 시작

고향사랑 지정기부제가 의료환경이 열악한 곡성지역의 소아과 진료를 가능하게 했다. 곡성군은 고향사랑지정기부금을 활용해 다음달 27일부터 매주 2차례 육과보건지소에서 소아과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진료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광주첨단메디케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육과보건지소를 직접 방문한다.

곡성군은 육과보건지소에 소아과 진료실을 개설했으며 의료장비 등을 설치하고 법적·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곡성지역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는 2400여명으로 대부분이 육과보건지에 집중돼 있다.

이들은 몸이 아플 경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광주·순천·여수지역의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곡성군은 의료시설이 열악한 환경이 지역을 떠나는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하고 지난 1월부터 고향사랑지정기부제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캠페인을 펼쳤다.



곡성군 관계자들이 지난 설 명절에 고향사랑지정 기부제와 관련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목표 모금액을 8000만원으로 설정하고 집중 홍보활동을 펼쳐 7개월여만에 달성했다.

곡성군은 '고령자 돌봄을 위한 마을빨래방 프로젝트'와 '소아과 의사 상주를 위한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시즌2', '유기동물 보호센터 확장 및 시설개선 프로젝트' 등을 지정기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고령자 돌봄을 위한 마을빨래방 프로젝트, 소아과 의사 상주를 위한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시즌2, 유기동물 보호센터 확장 및 시설개선 프로젝트 등을 지정기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